

강진 영랑문학제 ‘낭비성 축제’ 비난

콘텐츠 빈곤 속 주민 참여·관광객 유치 실패 지적 청자축제 등 10여개 난립...구조조정 시급 여론도

강진군이 주최하고 (사)영랑기념사업회와 ‘시와 시학사’가 공동주관하는 영랑문학제가 낭비성 축제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 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진에서만 ‘청자축제’를 비롯해 ‘전라병영성축제’, ‘다산제’, ‘영랑문학제’, ‘마량전어축제’ 등 1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난립해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간 열린 제9회 영랑문학제가 550만원의 예산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콘텐츠 빈곤은 물론 참여 저조와

관광객 유치 실패로 빈껍데기 축제로 전락했다.

대중가수를 부르는데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1000만원을 쓰는 것은 물론 시문학상 선정과 시상을 맡은 ‘시와 시학사’에게 1500만원이 지급됐다. 1500만원 가운데는 시문학상을 받은 시인에게 주는 상금 1000만원이 포함됐다. 또 시낭송회 시상금 700만원, 백일장 시상금 및 심사비 735만원이 배정됐고, 나머지 1565만원은 홍보비 등으로 사용됐다. 거액의 상금을 주는 시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논란도 잇따르고 있으며, 대중가수 공연이 끝난 뒤 행사 참여자들이 쓸물처럼 빠져나가는 등 사실상 축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랑문학제 폐막식이 당일 행사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이 없어 취소되기도 했다.

주민 정모(54)씨는 “영랑문학제가 대중가수를 부르고 상금 나눠주는 행사로 퇴색했다”며 “놀이 먹는 이런

행사는 군정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축제를 통해 열악한 재정자립을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는 애초 목표와는 달리 지방재정을 축내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실패한 것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영랑생가 주변에 세계모란공원이 조성되면 영랑과 모란을 연계해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성 ‘희망오케스트라’ 탄생

郡-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본부 업무 협약

장성이 아동의 꿈과 희망을 연주하는 ‘희망 오케스트라’가 탄생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장성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소동하)가 장성 희망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악기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어린이재단은 바이올린과 첼로 등 1200만원 상당의 악기를 무상으로 기증하고 군에서는 1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장성 희망 오케스트라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클래식음악 교육 사업이다.

위탁기관인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사레관리 대상가구의 아동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매주 2회 음악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희망 오케스트라를 통해 아이들이 협주 협연을 통한 어울림을 배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정서적 발달을 도모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달된 악기는 아이들이 직접 집에 가지고 다니면서 참여토록 해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는 게임과 TV 시청 등 유해한 시간을 절감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어린이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에서도 지역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완도교육청 중학생 수학경시대회

완도중 정준호 군 등 5명 금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은 지난 달 29일 ‘2013 완도군 중학생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했다. 관내 12개 중학교에서 교내 경시대회를 통해 선발된 32명의 대표 학생들이 이번 경시대회에 참가했으며 중학교 과정의 단답형, 서술형 평가문항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정준호(완도중), 서장범(완도중), 최은홍(완도여중), 장보성(고금중), 박범수(노화중) 등 5명의 학생들이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에는 김한수(완도보길중), 정현정(완도여중), 권선홍(완도중), 최승현(완도중), 박형준(약산중), 안영민(금일중), 김희진(노화중) 등 7명이, 동상에는 방신영(완도여중) 등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을 수상한 5명의 학생들은 군 대표로 전남도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흥상 교육장은 “수학 교과 학습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 및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STEAM)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수학적 사고력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500년 전통 해남 북평 용출다리기. 지난 1일 제40회 해남 군민의 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500년 전통의 북평 용출다리를 하고 있다. 우측경기가 일원에서 열린 군민의 날 행사에는 2만여명의 군민과 향우가 참여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목포 5000여 전국 수산경영인 대회 개막

한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2일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개막했다.(사진)

‘블루오션 수산업! 국민과 함께’란 구호 아래 열린 이날 대회에는 5000여명의 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개막식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박지원·이윤석 국회의원 등 관련 기관 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격려사에서 “수산업 경영인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바다를 지키고 수산업을 한층 더 육성·발전시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도해 나아가 한다”고 격려했다.

이 대회는 3일까지 수산자원조사성 행사, 체육행사, 학술심포지엄, 수산발전 기원제, 가족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목포=임영훈기자 lyc@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쟁걸음’

道, 관련 시군과 협약...학술연구·보존계획 수립 유네스코 센터 제출

전남도가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도지사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박영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조충훈 순천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했다.

신안 다도해 갯벌과 여자만 갯벌이 등재 대상인 서남해안 갯벌은 지형과 지질, 경관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은 다도해 갯벌(신안군), 여자만 갯벌(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2개 권역 5개 지역과 전북 곰소만 갯벌(고창, 부안), 충남 유부도 갯벌(서천) 등 3개도 8개 시군에 걸쳐 있다. 서남해안 갯벌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고 2011년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1년과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준비단 구성, 국내외 포럼과 학술대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등재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앞으로 세계유산추진단을 법인 형태로 설립해 학술연구와 학술대회, 보존관리 계획 수립 등을 하고 오는 201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2017년 등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갯벌의 효율적 보존과 현명한 활용을 위해 습지 보호지역, 도립공원, 명승지, 란사르습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왔고 국제협약인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등재만으로도 해당 유산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다”며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돼 전남의 자연유산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국제 문화관광교육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slee@

동함평산단 이달 말 착공

학교면 일대 73만㎡ 711억 들여 내년까지 조성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이달 말 착공한다.

함평군은 “광주~무안간고속도로 동함평 IC 부근인 학교면과 대동면 일대에 조성계획인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사업이 투·융자 심사와 산업단지계획심의 의결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께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711억원(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이 투입되는 동함평일반산업단은 ▲산업시설용지 49만2000㎡ ▲지원시설용지 1만3000㎡ ▲공공시설용지 23만㎡ 등 모두 73만5000㎡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된다.

함평군은 동함평일반산업단이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무안고속도로, 국도 23·24호선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철도가 관통하고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서 20분 내의 거리에 불과해 수도권 물류측면에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목포 신외항과도 가까워 선박을 이용한 해상물류 면에서도 유리한 여건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이 조성되면 1차급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52개 업종 80여개 업체가 입주해 약 3600여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방세 수 증가, 주민소득 증대, 지역산업구조 개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할 함평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제47회 The Yeosu Turtle ship Festival
여수거북선축제

삼도수군 통제영의 두드림!

2013. 5.3(금) ~ 6(월)
이순신광장 및 여수시일원
May 3rd (Fri) ~ 6th (Mon)
Yi Sun-sin plaza & Intracity Zone

통제영길놀이 5.3 오후 6시 30분 시민광원-이순신광장

주요행사
파발마제현/전라좌수영 입방군 점고/진해루 군사회의
독제/전라좌수군 군청/거북선의 고향 여수!
우리는 전라좌수군의 후예다!
각종 참여·체험·부대행사 등

주최: 여수시·(사)전남제전보존회
주관: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